

“억울해요...” 줄짓는 살인사건 재심

삼례 3인조 강도치사·익산 택시기사 살인·친부 살해 김신혜 사건 법원, 각각 16~17년만에 결정...사법부·경찰 수사 신뢰 추락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여는 ‘재심’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삼례 나리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인 사건’ 등이 모두 광주고법 관할이다. 재심을 한다는 것은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가 부실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있었는지, 아니면 확정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나왔던지... 결국 재심은 공권력의 표상인 경찰·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이들의 수사 기록을 인정할 법원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뜻한다. 물론 최종 판단은 기다려야 한다.

◇검찰 항고 포기 ‘삼례 3인조 강도치사’=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리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실이 17년 만에 다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심은 조만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리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지난달 16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렸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 만이다.

최씨(당시 16세)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 관련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입수되는 등 의혹은 계속됐다. 특히 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

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변호인 측은 법정진술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강압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에서는 불법·부실 수사에 의한 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기존 증거 능력을 전부 재심하고 당시 수사 경찰관과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씨 등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친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39)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복역 중인 수형자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해 재심 개시 여부는 광주고법에 머물러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으며 감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 등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으며 무죄를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내기 공무원들 “열심히 할게요” 광주 북구 새내기 공무원들이 12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딤돌 캠프’에서 전문강사로부터 공직생활 에티켓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불재 부근 주의...무등산 산악사고 최다

상반기 111건 중 25건

무등산에서 산악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장불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상반기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111건 사고 현장에 출동해 121명을 구조했다.

발생 장소는 장불재가 25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늦재삼거리 16건(14.4%), 토끼등 9건(8.1%) 등 순이었다.

장불재는 정상 부근과 가까운 곳으로 대체로

내려오는 길에 부상이나 탈진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본부는 전했다.

월별로는 1월이 34건(30.6%), 4월 22건(19.8%), 5월 16건(14.4%) 등 순으로 많았다.

요일별로는 등산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45건을 차지했다. 특히 1월에는 등산 신발이나 방한복 착용 없이 햇빛을 갔다가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119 산악구조대는 임시 발대 시점인 2013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97건의 산악사고 현장에서 507명을 구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소방통로 확보일까...실적 올리기 단속일까

전남 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90%가 여수...3년5개월 410건 중 370건 적발

전남지역 12개 시·군 소방서가 지난 3년5개월간 적발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중 90% 이상이 한 소방서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방서 측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했다는 반면, 나머지 소방서는 주민마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사실상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각 시·군 소방서가 지난 2013년~올해 5월 말까지 3년5개월간 소화전·소방용 방화 물통·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 도로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적발한 건수는 모두 410건.

현행법상 소방관은 이 같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다. 논란이 이는 점은 한 소방서가 전남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소방서는 지난 3년5개월간 전체의 90.24%인 370건을 단속했다. 반면 목포·나주·보성·영암·영광·화순소방서는 지난 4년간 단속 실적이 전무했으며, 순천과 강진소방서는 각각 1건씩 단속했다. 담양소방서는 8건, 해남소방서는 12건, 광양소방서는 18건의 단속실적이 있다.

일부에선 단속 여부를 놓고 기관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쌓기용 아니었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중앙에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기관평가 항목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단속 권한이 있는데도, 주변의 시선 등을 의식해 권한행사조차 하지 않은 이들이 실적쌓기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합리화라는 지적이 많다. 해당 업무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출 대학구성원 참여 늘린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교육부가 국립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16일 발

표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구성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위원의 비율을 종전 75%에서 90%로 확대했다.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최대 위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늘렸고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할 수 있고,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정책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8 달뜨기 13:45
해질 19:48 달지기 00:34

블래지수 높이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비가 오다가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3/30	보성	비온뒤맑	23/30
목포	구름많음	23/28	순천	비온뒤맑	23/31
여수	비온뒤맑	23/29	영광	구름많음	23/29
나주	구름많음	23/30	진도	구름많음	23/28
완도	비온뒤맑	23/29	전주	비온뒤맑	23/30
구례	비온뒤맑	23/32	군산	비온뒤맑	22/29
강진	비온뒤맑	23/30	남원	비온뒤맑	23/31
해남	비온뒤맑	23/29	홍산도	구름많음	21/21
장성	구름많음	22/29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면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	서~북서	1.0~2.0
	면바다(동)	남서~서	2.0~4.0	서~북서	2.0~3.0
	면바다(서)	남서~서	1.5~3.0	서~북서	1.5~3.0

◇생활지수

- 식중독
- 자외선
- 미세먼지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8:05	01:12	20:58	13:54
	02:47	09:13	16:15	22:10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4(목)	☁	23/32
15(금)	☁	24/27
16(토)	☁	23/28
17(일)	☁	21/29
18(월)	☁	21/29
19(화)	☁	21/28
20(수)	☁	23/28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016년 9월 4일 ~ 11월 6일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참가신청

- 참가 신청 기간: 2016년 7월 13일(수) ~ 7월 22일(금)
- 구비서류: 선수등록 신청서, 팀단체사진
- 선수등록은 23명으로 제한하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될 수 있음

참가팀수

무등·광일 토너먼트 각16개팀(총 32개팀)

각 토너먼트의 선수 구성

- 무등 토너먼트: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으며 선수로는 1명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음(단 투수·포수 금지)
- 주인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광일 토너먼트: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음(단 선수로 경기 참여 불가능)
- 주인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시상

-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 최우수감독상
- 최우수선수상
- 우수선수상
- 최우수심판상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kwangju.co.kr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주관 GBA 광주광역시야구협회

후원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